



민병두 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과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양측 인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통합신당 창당 정무기획 단회의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AI 이번엔 순천서 발생

### 7만2000여마리 살처분... 전남 동부권 확산 우려

순천의 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는 등 AI가 전남 동부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2일 전남도는 "순천 낙안면 한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인 H5N8형이 확인돼 이 농가를 포함해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내 닭과 오리 7만2000여마리(3농가)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경계지역 출하 농가와 병아리 입식 농가를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닭과 오리 집산지인 나주와 영암을 비롯해 해남, 영광 등 서부권에서만 AI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4일 해남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넘게 지속됐지만, 순천, 고흥, 여수, 광양 등 동부권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천 농가는 지난 1월 17일 이후 역학관련 농장으로 분류돼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졌고, 최근에는 지난달 17일 전북 정읍의 AI 발생 농가에 들어갔던 사료차가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오리가 2개월 가까이 출하를 못한 채 사육돼 밀식 등 사육환경이 극히 악화된 상태였다.

전남도는 워낙 오랜 기간 이동제한이 이뤄져 사육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에서 H5N8형 AI가 검출된 농장은 의심축 신고로 인한 6곳과 역학 관련 병성 감정 결과 7곳 등 모두 13곳으로 늘게 됐다.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순천 낙안읍 농가를 포함해 모두 41개 농가에 75만4200마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정권교체 의지” 환영 vs “구태정치 반복” 불만

### 신당 창당 시도민·전문가 반응

끝까지 믿고 지지... 강한 야당 만들어 수권정당 이뤘으면  
양당제체 회귀 아쉬움... 영남 아우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휴일인 2일 아침 6·4 지방선거 이전에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깜짝 발표한 것을 놓고 광주·전남 시·도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신당 창당을 통한 정권교체 의지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일부에선 합종연횡을 일삼아온 과거 정치 행태의 반복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양당 체제가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시 광산구 수안지구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박기민(56)씨는 “민주당과 안신

당(새정치연합)이 끝까지 경쟁을 해 새누리당만 도와주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통합을 한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이번 기회에 호남을 중심으로 한 강한 야당을 만들어 2017년에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전남 장흥에서 농사를 짓는 안모(73)씨도 “그동안 지역에서는 안철수(씨)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면서도 영남에는 열심도 못하고, 호남민심(표)만 갈라놓고 있다는 나쁜 여론도 있었다”면서 “이왕이면 새누리당보다 훨씬 크고 힘있는 정당을 만들어 호남만 차별하는 권력자들을 심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당 창당에 환영은 하면서도 자칫 새정치를 추구해온 ‘안철수 바람’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지역민도 많았다.

주부 손수희(32·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기득권 위주의 기존 정치문화를 깨겠다는 안철수씨의 신당 창당에 거는 기대가 많았는데, 민주당과 통합한다고 해 아쉽다”면서도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든, 처음부터 안철수씨를 지지했으니 끝까지 믿고 지지해 보겠다”고 말했다.

택시운전민 12년째라는 박모(42·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씨는 “승객들의 반응이 대체로 (통합에 대해) 잘됐다고 하면서도 이번만큼은 꼭 영남까지 아우르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힘있는 정당이 됐으면 하는 등 애정섞인 충고도 많더라”고 지역 내 민심을 전했다.

일부 지역민과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통합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회사원 김지훈(42·광주시 동구 서석동)씨는 “요즘 방송 등에 나온 안철수씨의 열

굴 표정에 힘이 없어 흑사나 했는데, 역사나 또 홀로서기를 포기한 통합이냐”며 “안철수를 통한 새정치를 기대했던 광주시민은 모두 바보가 됐다. 이제 안철수도 믿을 수가 없다. 뒤 좀 되느라 싶으면 그만(양보)두고, 합치고, 이제 (안철수는) 정치판에 안 나왔으면 한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지방권 조선훈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새정치연합이 잘돼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양당 지배구조를 바꾸길 희망했는데, 양당 통합으로 물거품이 됐다”면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든 결국 호남 1당 체제, 전국 양당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특히 제3정당 역할을 해온 통합진보당마저 사실상 힘을 잃은 상황에서 새정치연합마저 사라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다만 “어쨌든 신당이 창당되는 만큼 과거의 민주당과 똑같은 호남정당이 아닌 영남에서도 힘이 있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지방과학기술 진흥계획 수립하자” “지역업체 해외진출 지원단 만들자”

### 전남도 수습사무관들 연구보고서 한승연씨 최우수... 정례조회 발표

“수주년에 허덕이는 지역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지원단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까?” “전남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R&D 분야 발전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해보죠.”

전남도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사무관 10명이 4개월간 도정을 살펴보고, 현장을 돌아본 뒤 최근 연구보고서를 내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선배’들의 냉혹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한승연(여·25)씨의 ‘지방과학기술 진흥정책 활성화 방안’은 3일 직원 정례조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씨는 이 보고서에서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부 8대 중점추진과제의 투자방향향을 전국과 전남을 비교·분석, 전남도가 모든 분야에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 R&D 기획관리 역량 및 기반 강화’, ‘지역 R&D 추진체계 개선 및 재정비’ 등의 분야에 도는 아예 투자가 없었다. 미흡하기 짝이 없는 지역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운영, 언제나 후순위로 밀리는 R&D에 대한 무관심 등도 질타했다. 문제점과 함께 대책도 내놓았다.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구분하는 등 정책결정방식을 수정하고, 지역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전문성 및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고 의존적 매칭사업이 아니라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

하자는 것이다.

한씨는 “전남도의 열악한 과학기술 여건을 살펴본 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할 것 같아 의견을 냈다”며 “전남에 좀 더 예산과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제기에 접어든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선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성훈(26)씨는 “전라남도 건설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에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라남도 해외진출 지원단을 조직하고 그 밑에 관련 실과로 실무지원회를 구성하자고 건의했다. 지원단은 도가 결연을 맺은 해외도시의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도 지역건설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영암 풍력발전단지 부지 활용, 중국 관광객 유치,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수습사무관들은 자신들의 분야에 맞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남도는 오는 5월부터 중앙부처로 올라갈 수습 사무관들의 보고서 내용을 도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보고서의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이 정도면 수작”이라며 “이들 사무관들이 중앙부처에 거론 전남도의 든든한 홍보대사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주 빛가람도시에 유치원·초·중·고 4개교 오늘 개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도시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개 학교가 3일 나란히 개교한다.

전남도교육청은 2일 나주시 금천면 일원에 조성 중인 빛가람혁신도시에 한아름유치원과 빛가람초등학교, 빛가람중학교, 빛

가람고등학교를 건립, 3일 정식 개교한다고 밝혔다.

한아름유치원은 우선 3·4·5세반 3개 학급이 개설된다.

30학급 규모로 건립된 빛가람초는 학년당 1개 학급씩 총 6개 학급이 편성됐고, 빛

가람중학교도 학년당 1개 학급씩 3개 학급만 편성에 문을 연다.

고등학교는 봉황면에 있는 봉황고를 혁신도시로 이설해 운영한다. 아직 신축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오는 5월까지도 빛가람중학교에 5개 학급을 편성, 공동 사용

한다.

이들 학교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농식품공무원교육원·전파진흥원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자녀들이 다닌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개교하는 4개 학교에 이어 오는 2018년까지 9개 학교를 추가 설립해 혁신학교 내에 총 13개 유치원·초·중·고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1226-총-52297호

#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전라남도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탁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임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탁**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흥암지점 | 653-4474

## 일하는 백세! 활기찬 노후!

제2의 인생 또다른 비상  
노인일자리 사업이 함께 합니다.

인력파견사업단은 노인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소개하는 사업단으로 60세 이상 신체건강하고 의욕이 넘치시는 어르신들을 일자로 모십니다.

광산구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전담기관입니다.

운영법인 | 사단법인 하남효사랑  
설립일자 | 2007년 8월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

대표자 | 박석원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107 (하남동)  
이용인원 | 약 700여명

노인이 웃는 시골만들기!

**광주광산시니어클럽**  
tel. 062)952-9507~3